

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[8]

1. 야곱의 귀향 (31:1~55)

1)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야곱(31:1~16)

(1)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.(1~3)

①야곱의 부유함과 더불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한다.

②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볼 때에 전과 같지 않았다.

③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, “너와 함께 하겠다.”고 약속하신다.

(2)야곱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어 설득한다.(4~13)

①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.

②야곱은 지난 날 모든 시간동안 라반에게 힘을 다해서 충성하였음을 아내들에게 말한다.

③라반은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지만,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창하게 하셨다.

④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 라반의 잘못된 행위를 갚아, 야곱을 축복하셨음을 알려주셨다.

⑤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내들에게 말한다.

(3)라헬과 레아의 결단(14~16)

①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의 부당함에 동조하면서 떠나기로 결심한다.

②라헬과 레아는 모든 재산은 우리의 것이니 야곱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한다.

2)라반의 추격(31:17~42)

(1)야곱은 라반 몰래 도망간다.(17~21)

①야곱은 ()에서 얻은 가족과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향한다.

②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의 ()을 도둑질한다.

*드라빔 : 가족 신, 때로 재산 상속의 인장과 같은 역할도 한다.

③야곱은 강은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다.

(2)라반은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여 만난다.(22~29)

①라반은 야곱이 도망을 한지 삼일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고, 추격을 시작한다.

②라반은 칠일 동안 추격하여 야곱 근처까지 이르는데,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신다.

-“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.”(24)

③라반은 야곱에게 왜 몰래 도망을 갔느냐며 책망한다.

④라반은 야곱을 해할 힘이 있지만, 하나님께서 ()하여 막으셨음을 말한다.

(3)라반은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을 찾다가 실패한다.(30~35)

①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이 없어진 책임을 야곱에게 묻는다.

②야곱은 라헬의 소행임을 모르고,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한다.

③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었으니 드라빔을 찾지 못한다.

④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, 라헬은 핑계를 대어 드라빔을 감춘다.

(4)야곱은 지난 날의 감정을 라반에게 털어놓는다.(36~42)

- ①야곱과 라반의 전세가 역전되어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낸다.
- ②야곱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, 모든 사람 앞에서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.
- ③야곱은 지난 20년간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당한 설움을 그대로 다 쏟아낸다.
- ④야곱은 라반의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셨음을 말한다.
- ⑤야곱은 지난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심도 ()임을 말한다.

3)야곱과 라반의 언약(31:43~55)

(1)라반은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.(43~50)

- ①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대우하면서 언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다.
- ②야곱이 돌을 가져 ()으로 세우고, ()를 만든다.
- ③라반은 이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, 야곱은 갈르엣이라 부른다.
*여갈사하두다 : 아람 방언 / *갈르엣 : 히브리 방언 =>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다.
- ④돌 무더기를 미스바라고도 불렀다.
*미스바 : 파수대라는 뜻이다.(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.)
- ⑤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들을 위한 언약을 야곱에게 말한다.

(2)증거의 돌무더기에 담긴 의미(51~55)

- ①증거의 돌무더기는 야곱과 라반의 각 경계가 되어 서로 침략하지 말 것의 증거가 된다.
- ②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()하실 것이다.
- ③라반은 잃어버린 드라빔도 염두에 두고, 후에 재산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.

2. 야곱과 에서의 만남 (32:1~33:20)

1)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(32:1~12)

- (1)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()이라 부른다.(1~2)
- (2)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갖는다.(3~6)
 - ①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낸다.
 - ②야곱은 사자들을 통해 에서에게 자신의 재산을 밝히고, 형 에서를 만나기 원한다는 뜻을 밝힌다.
 - ③사자들은 에서가 ()을 거느리고 야곱을 보러 오고 있음을 알린다.
- (3)야곱은 ()을 세우는 동시에 하나님께 ()한다.(7~12)
 - ①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동행자와 소유를 두 떼로 나눈다.
 - ②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다.
 - a.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셨나이다.
 - b.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 - c.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총으로 지금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.
 - d.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옵소서.

e.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.

f.주께서 “내가 만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.” 하셨습니다.

2)천사와 씨름하는 야곱(32:13~32)

(1)야곱은 떼를 나누어서 모든 무리로 하여금 ()을 건너가게 한다.(13~23)

①야곱은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한다. : 암염소 이백 마리, 숫염소 이십마리, 암양 이백마리, 숫양 이십마리, 젖 나는 낙타 삼십마리와 그 새끼, 암소 사십마리, 황소 열마리, 암나귀 이십마리, 그 새끼 나귀 열마리.

②야곱은 예물을 여러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, 거리를 두고 이동하게 한다.

③야곱은 에서를 만나면 “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예물입니다.”라고 말하게 한다.

④야곱은 예물을 주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한 후에 만나고자 한다.

⑤야곱은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박 나무를 건너게 한다.

(2)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다.(24~32)

①야곱은 모든 사람과 소유를 다 보내고,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()을 한다.

②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다.

③날이 새려할 때에, 천사가 떠나려하지만,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 말한다.

④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()이라 바꾸어 준다.

*이스라엘 : 하나님과 맞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.

⑤야곱은 천사의 이름을 묻지만,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간다.

⑥야곱은 그곳을 ()이라고 명하고, ()을 뵈었으나 생명이 보존 되었음에 감사한다.

⑦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의 둔부 힘줄을 찢으므로,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분을 먹지 않는다.

3)야곱과 에서의 만남(33:1~20)

(1)야곱과 에서가 재회의 인사를 나눈다.(1~11)

①야곱은 에서를 맞이하는데,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,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,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의 순서로 세운다.

②야곱은 제일 앞에 서서 몸을 ()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.

③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고 입맞추며 서로 운다.

④에서는 야곱의 처자식들에게 순서대로 인사를 받는다.

⑤에서는 자신이 마주한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, 야곱이 강권하자 받는다.

⑥야곱은 에서의 호의적인 반응에 기뻐한다.

—“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()을 본 것 같습니다.”(10절)

(2)야곱과 에서가 각자의 길을 간다.(12~17)

①에서는 야곱의 무리를 호위하겠다고 하나, 야곱은 극구 사양한다.

②야곱은 후에 에서가 사는 세일 땅에 방문하겠다고 말한다.

- ③에서는 세일로 향하고, 야곱은 ()에 이르러 집과 우릿간을 짓고 잠시 정착한다.
 (3)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정착한다.(18~20)
 ①야곱은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세겜 성읍에 평안히 이르러 장막을 친다.
 ②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()에게서 장막을 친 밭을 백 크시타에 산다.
 ③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, 그곳 이름을 ‘엘엘로헤이스라엘’이라 부른다.
 *엘엘로헤이스라엘 : 하나님,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.

3.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(34:1~35:29)

1)세겜 도성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디나(34:1~31)

- (1)디나는 세겜 성에 구경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.(1~7)
 ①세겜 성에 나들이를 갔던 디나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에 의해 욕을 당한다.
 ②하몰의 아들은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,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을 요구한다.
 ③야곱은 딸의 소식을 들었으나, 아들들이 들에서 오기까지 잠잠하였다.
 ④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였다.
 ⑤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.
 (2)세겜 성읍의 하몰이 자신의 아들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한다.(8~12)
 ①세겜 성읍의 하몰은 야곱의 가문과 ()하기를 원하였다.
 ②하몰은 이와 더불어서 야곱의 가문이 이 지역에 거하는 편의를 보장한다.
 ③하몰의 아들 세겜은 야곱과 아들들에게 간청하면서,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말한다.
 -“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도 다 주리라.”(12)
 (3)야곱의 아들들은 결혼의 조건으로 ()를 내세우고, 세겜 성읍 사람이 수용한다.(13~24)
 ①야곱의 아들들은 결혼의 조건으로,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요구한다.
 ②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한다.
 ③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.
 (4)야곱의 아들 ()과 ()가 세겜 성읍을 진멸한다.(25~31)
 ①할례 삼일 후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쳐들어간다.
 ②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, 디나를 데려온다.
 ③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성읍의 모든 여자와 가축들과 물건들을 다 노략한다.
 ④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꾸짖지만, 아들들은 반성하지 않는다.
 -“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에게 ()를 내게 하였도다.”(30)

2)야곱을 뻔엘로 부르시는 하나님(35:1~15)

- (1)하나님께서 야곱을 뻔엘로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.(1~8)
 ①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부르시고, 뻔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신다.
 ②야곱은 자신과 집안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도록 준비시킨다.

a.이방 신상을 버리라.

b.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.

③야곱은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벧엘로 올라가자고 말한다.

④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상과 금고리를 야곱에게 주고,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는다.

⑤하나님께서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()을 주시사, 추격하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.

⑥야곱과 모든 일행에 벧엘로 올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, 그곳을 ()이라 불렀다.

⑦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, 벧엘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다.

*알론바곳 : 눈물의 상수리나무

(2)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복을 주신다.(9~15)

①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신다.

②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.

a.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.(엘 샤다이)

b.생육하며 번성하리라 한 백성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.

c.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.

③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부른다.

3)라헬, 이삭의 죽음과 야곱의 족보(16~29)

(1)라헬이 산고로 죽는다.(16~22)

①라헬은 에브랏 근처에 이르러 난산을 하게 된다.

②라헬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른다.

③야곱은 아이의 이름을 ()이라고 불렀다.

*베노니 : 슬픔의 아들 / *베냐민 : 오른손의 아들

④라헬은 죽어 에브랏, 곧 베들레헬 길에 장사되고, 야곱이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운다.

⑤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한다.

(2)야곱의 아들들(23~26)

①레아의 아들들 : 르우벤^①, 시므온^②, 레위^③, 유다^④, 잇사갈^⑤, 스불론^⑥

②라헬의 아들들 : 요셉^⑦, 베냐민^⑧

③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 : 단^⑨, 납달리^⑩

④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: 갓^⑪, 아셀^⑫

(3)이삭이 죽다.(27~29)

①야곱은 ()에 가서 이삭을 만난다.

②이삭의 나이 180세에 늙어 죽고,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낸다.

※성경암송 : 창세기 32:27~30

